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전국일동 향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웅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말씀과 찬양의 하모니

성탄 축하 찬양의 밤, 목요일(21일) 저녁 7시, 갈릴리울
헨델의 '메시아' 찬양, 금요일(22일) 저녁 7시, 본당



9월 중순부터 매주 금요일(21일) 시에 선포되었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우리의 사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을 수 있었던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수개월 전부터 성탄을 소망하며 드렸던 찬송은 크리스마스 메시지와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였습니다(눅 2:14). 이번 주에는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탄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21일)에는 제1·3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날 금요일(22일)에는 연한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주관으로 헨델의 '메시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제 19장)로 예배당이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성탄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성탄의 참 기쁨과 찬송으로 풍성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고하니 어둔 밤이 밝았네"(찬 108장).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은 매 금요일(21일) 시, 자격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일정령 후로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안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기다리던 분이 구주 예수님이기에 마음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했습니다. 마침내 구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불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리라"(눅 2:38).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충현의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온통 예수님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소망부는 항상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남은 삶을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조직하려 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또 내가 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제 21:2). 예루살렘 찬양대는 매 주 금요일(21일) 시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대의 자격은 노래를 잘 하시는 분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음악적 재질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하신 어르신이면 누구나 찬양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오십시오(마 18:3).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특별제직

일시: 오늘(17일), 찬양대배 후 / 대상: 모든 제직 / 내용: 2006년 결산 및 2007년 예산

크리스마스 메시지② (금요일(22일))

선지자들과 약속들

성할 막대한 권력을 가진 왕의 모습을 가슴 속에 그리고 있던 만민(단 13:14; 렘 1:26). 그러나 이사야가 전하여 준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이었다(사 53:1-3).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들, 즉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더욱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한 희생으로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언급하고 있다(사 53:10, 11).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 즉,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또 영적으로 당하신 모든 고통을 그 댓가로 치러 주셨다(사 53:12).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은 선전이 무너지고 참이 될 것이라는 등의 대부분이 불길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31장에서는 좋은 소식을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이들의 뿌리가 드러나고 해파하며, 전복하며, 열하여 곧내게 되는 것을 경성할 것이라 그들을 세우며 심을 것을 말씀하셨다(렘 31:27, 28). '세운다'와 '심는다'라는 말들은 갈릴 갈릴과 그리고 막을 양식을 의미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렘 31:31, 32). 그러나 이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 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들의 마음속에 새기어 주신다(렘 31:33). 유대인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렘 31:34). 그리스도의 파로써 완전한 회생이 되어 주신 것이다(고전 11:24-26).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신을 믿는 새 길이 우리 앞에는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와 번제를 드리는 모든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고자에 대해 전혀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도 본단(신 23:1). 그 이유는 이들이 다른 지도자를 섬기도록 따로 구별되어 그 표적으로 고자가 되었기에 불결한 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약에서 순결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깊은가를 깨달을 때에 신약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에 대한 나위 없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고자들과 같이 부정한 자로 인정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

셨다(행 8:26-28). 우리에게는 이제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베풀어주셨으나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때의 기적은 잊으라고 하신다.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사 43:16-19). 이스라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저들의 죄성과 죄악에서 용서를 받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를 개하시며 또 잊어 주시는 생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사 43:20, 21).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로 더불어 사는 동안 영원토록 생동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을 허락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 의, 죄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히 9:14). 예수님 앞에 내어 드리자.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사 43:25; 시 103:11-13).

성경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뜻에 합한 자'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믿기가 어렵다. 특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우리아의 아내 밋새바를 취한 음행과 살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볼 수 있단 말인가(삼하 12:2-4)!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룩한 자들, 곧 우리 모두가 지독한 죄인임을 말하여 준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즉시로 자복하였다(삼하 12:13).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우슬초로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용감하게 간구하고 있다(시 51:7, 14-17). 첫 번째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문질러야 바를 때에 우슬초 묶음을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곧,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다윗은 이해한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의 넓은 품에 다시 품어 주실 줄 믿는다. 나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진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떠한 죄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다. 내 가슴 속에 흐른 죄의 물은 거룩한 양의 피를 속속히 씻어낼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를 수 있기를 원한다.

ANGELS AND SHEPHERDS

(8)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ome shepherds staying out in the fields an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 (11) for today in the city of David there has been born for you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12)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13) And suddenly there appeared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Luke 2:8~14)

Christmas is about Christ coming from heaven to earth. It is a time when heaven and earth miraculously work together. Prior to Christ's birth, heaven opened and an angel delivered a very special message to Zacharias (Lk. 1:5-20), Mary (Lk. 1:26-38), and Joseph (Mt. 1:20&21). On the night of Christ's birth, heaven opened and God sent down not just one angel, but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His angels visited with some humble shepherds in a Bethlehem field. These shepherds received the most wonderful of all news. They did not expect it. They were just going about their normal shepherding duties when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an angel appeared. A wolf they anticipated, but an angel? This heavenly angel gave them the Christmas message. Right after, heaven opened again and thousands upon thousands of angels appeared before them praising God. What an amazing night! What a spectacular message!

The message from the heavenly angels was specifically meant for the earthly shepherds. The first angel told them, "Do not be afraid;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which will be for all the people; for today in the city of David there has been born for you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vv. 10&11). The shepherds heard they had a Savior. Finally, their promised Messiah had come, just as the prophecy of Micah predicted, "But as for you,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Mic. 5:2). God chose these poor and lowly shepherds, not the rich or great officials, to deliver the most wonderful message this world has ever known. They received first honors because God wanted them to know that Christ the Lord had at last come to save all the sinners of the world, most especially them. The angel even gave them the most confidential information,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v. 12). In essence, God gave them Jesus' address. These blessed shepherds were given the privilege to see their Messiah, Jesus Christ, face to face. All the things they heard and saw that very first Christmas night was meant just for them. God's love, their Savior, touched them in an extraordinarily personal way.

The message for the shepherds was a message of praise. When the host of angels came down from heaven, they sa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v. 14). Glorifying God was not something new to the angels. Psalm 19:1 tells us, "The heavens are telling of the glory of God; and their expanse is declaring the work of His hands." Night and day the angels praise their Creator, but here, these angels praise God "in the highest". Why do the angels praise Him in the highest? God's highest glory is declared in His salvation. The angels sa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because Jesus was born. His birth is the highest thing. Luke 15:7 says,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Can you see why the angels sang like they did? In this world, most people praise the rich and famous, but in heaven when just one small soul comes to life, great joy resounds. We serve and worship the highest God, and the birth of His Son, Jesus Christ, reaches to the highest of all glory.

The Christmas message that the angels delivered to the shepherds was a message of peace. They sang,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v. 14). On this earth, the shepherds could now have peace. That's God's message. That's the message the angels gave to the shepherds. When Adam and Eve sinned, the peace on earth disappeared. When Jesus Christ was born, humans could once again find peace with God. Ephesians 2:13&14 say,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formerly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made both groups into one and broke down the barrier of the dividing wall." Jesus Christ is our peace,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Rom. 5:1). He was born into a manger, a humble and lowly place, but He was born as the King of Peace. Whenever and wherever Jesus comes into your life, there is always peace. In other words, if you do not have peace, then you do not have Jesus. God sent His wonderful Son to this earth so that whoever humbly receives His message can know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Through Christ, they can walk with God, glorify Him, and have everlasting peace.

My dear friend, would you like to have what the shepherds found in the manger? This same Christ invites you today. Please respond to His love. Do you really want to join in Christmas today, where the heavenly and earthly workings come together? Do you want to accept the gospel,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Do you want to sing together with the angels and have deep peace in your heart that endures forever? The shepherds definitely did not expect Christmas that night, but that i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It is not about making today's businessmen rich by spending all your time and money on frivolous things like gifts, cards, and trees. It is all about Christ! I want you to humbly find your King, your mighty King in the manger. I want you to receive the holy angel's message deep inside your heart that Christ the Lord is your personal savior, who deserves your personal praise, and who will bless you with His very personal peace. Leave this holy place today with Him, glorifying and praising Him for His love, and let His peace be with you always. Amen. 🙏

다음 주일 설교

천사들과 목자들

(8)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8~14)



김성원 목사

크리스마스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날입니다. 이 때야말로 하늘과 땅이 기적적으로 함께 역사한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하늘이 열리고 한 천사가 내려와 사가랴(눅 1:5~20)와 마리아(눅 1:26~38), 요셉(마 1:20, 21)에게 매우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날 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한 천사가 아니라 허다한 천군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보잘 것 없는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목자들은 지금까지 전해들은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평소와 같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한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놀라려면 모를까, 천사라니 그들은 어안이 병 났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그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다시 열리더니 허다한 무리의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적의 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주 탄생의 메시지

하늘의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 땅의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10, 11절). 목자들은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부자나 고위 관리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오셨다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12절). 핵심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받은 목자들은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에 그들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찬양의 메시지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찬양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이 내려오더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14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9:1은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밤으로부터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은 그분의 구원하심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5:7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작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영광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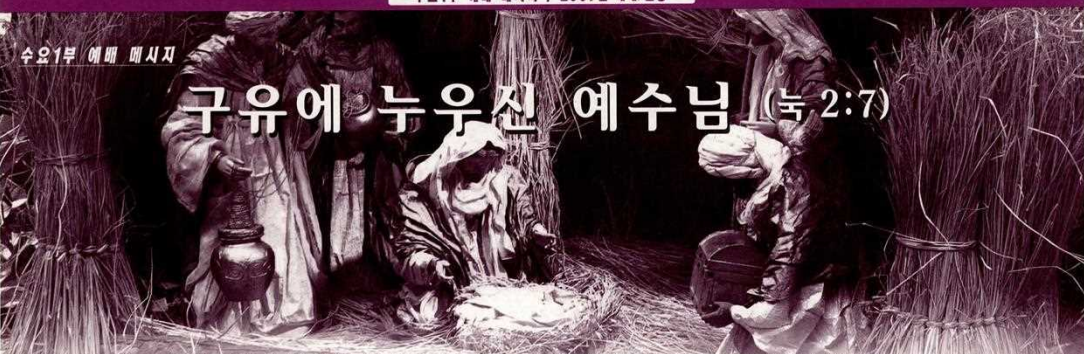
평화의 메시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14절). 이제 목자들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다시 한 번 인류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13, 14는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누님은 낮고 천한 장소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여러분에게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겸손히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평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말 구유에서 발견했던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니까?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반드시 응답하십시오. 정말로 오늘, 하늘과 땅이 함께 역사했던 크리스마스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니까?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가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깊은 평화를 맛보기를 원하시니까? 분명히 목자들은 그 날 밤이 크리스마스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오늘날처럼 선물이나 카드, 트리를 사는 등 하찮은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 장사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주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구유 안에서 영리들의 왕, 전능하신 왕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 각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평화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눅 2:7)



2000년 전 베들레헨, 한 여인의 마굿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자. 가냘픈 한 부부가 강보에 싸여 누워 있는 한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동물들이 울고 악취가 풍겼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진 놀라운 은총이 그곳에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이 놀라운 소식이 근처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눅 2:12).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실재했던 이 놀라운 광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헨, 동물들로 가득한 마굿간의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 집중하자.

기적이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이것은 인간의 이성, 지식,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그 자체이다. 아기 예수께서 나신 밤은 기적의 밤이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기적의 밤이었다. 이 기적을 위해 요셉은 베들레헨으로 갔다(눅 2:4). 이 기적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다(미 5:2). 마침내 “때가 차매” 이 기적은 인간의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갈 4:4).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였다(갈 4:5). 이것은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의 기적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이 놀라운 기적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창조주가 성육신하신 은총인가? 아니면 세상의 축복인가? 영의 눈을 뜨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비롯한 온 땅의 만물이 찬양을 드린 곳은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였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다.

세상이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이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탄에 있을 것이 없으리라”(눅 2:7). 모든 만물은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역사로 되었지만 세상은 이 예수님을 외면하였다(요 1:13). 베들레헨이 존재인 이유도 구세주의 반성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였다(요 1:10,11).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2000년 전 베들레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가?” 예수님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 종교지도자 들처럼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구세주로 못 믿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배역한 사람이 바로 우리다. 진심으로 회개하자!

구유는 그의 구속을 표현하고 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구유는 곧 그의 구속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채 구유의 외적인 모습만을 본다면 우리는 영원한 패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구유는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다. 성경을 보라.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제사의 제물로 희생당한 것은 동물이었다.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한 동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매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제사장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요 1:29)이라고 하였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하늘의 노래는 이렇게 울려 퍼질 것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리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라”(계 5:9,13).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다(계 7:10,17).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국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만물 중 가장 의롭고 참되시다(계 15:3, 17:14). 도저히 인간이 이를 수 없는 구속의 출발점이 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기쁨으로 찬탄해 된다.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계

19:7). 구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표현하고 있다.

구유는 아무라도 대할 수 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이 구세주를 향해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구유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 사람은 없다. 당연히 예약도 필요 없다. 구유는 누구든지 찾아와서 손을 댈 수 있는 은총으로 열린 공간이다. 베들레헨 근처에 목자들이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눅 2:8). 이들은 매우 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을 향해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라”(눅 2:11,12). 이 표적을 자기를 부인할 때 발견할 수 있다.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며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때 반드시 만날 수 있다(요 6:37). 구유에 나아가 때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명! 자기 자신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유는 아무라도 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럼에도 세상은 이 기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구유가 단순히 동물들을 위한 방그릇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 어린 주 예수 눈 자리 없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한133).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구유, 그 찬한 곳에서 나신 예수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나의 삶의 제물, 찬미,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07년 예배 찬송

찬송가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2007년 주일 예배 때마다 찬송가 242장을 찬양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무엘 존 스톤(1839~1900)이 작시한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를 상호 간의 관계를 노래한 찬송이다. 특별히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감히하신 파흘러 왔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여.”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와 교회는 각각 ‘터’와 ‘전 축’을 및 ‘신부’와 ‘신부’로 비유되었다. 또한 2,3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한 몸’에 비유되었다.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을 가지네, 한 이를 찬송하고, 한 성령 잃으며,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라는 가사처럼 시인은 교회 성도들의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one)이라는 말을 무려 여섯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어서 한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온 성도가 모여 한 몸이 되어서 한다. 그리고 온 땅 열방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성경에서 찾는 찬송가 242장 가사의 의미

터,1:1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전 3:10,11; 2:20 / 피로 사신 교회 행 20:28; 계 5:9,10
주님의 신부인 교회 고후 11:2; 5:22-32 / 그리스도의 영광인 몸 골 1:18; 1:22,23
교회의 일체성 엡 1:10, 4:3-6 / 하나님과 교회 딤후 3:5; 고전 1:2

(편집국)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구



전충열 (장로, 교구위원장)

예수님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한 2007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교구에 서로 복음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일꾼 세우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모든 교구는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특별히 2007년 교구위원회의 표어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마 16:18)으로 정하였습니 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아님을 믿기에 더욱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교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온전한 순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딤후 4:5).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교구에서는 모든 교구 식구들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

기표와 주간 성경 통신장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구 식구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심방을 할 수 있도록 교역자와 심방대원들은 더욱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보혈의 은총을 전하는 주님의 교구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는 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 더욱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행 8 장). 이처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보혈의 은총을 전하는 주님의 교구가 되도록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모든 교구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 열방을 향해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십자가를 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교구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복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구

교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구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장 서서 일하는 일꾼들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은총으로 주님의 교구가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공예배와 집회에 모든 교구 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회의 제직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전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권면하여 함께 참여하여 복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직의 자녀로서 교회학교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계획과 결심이 굳을지라도 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여 매순간 예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창 32:10).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찌어다”(속 4:7).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교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매순간 회개하는 교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되는 교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세속화되는 교회를 속에서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십자가 되어 복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의 주님의 교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2006년 하반기 수요 성경공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것을 서두로 삼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다. 하나님의 종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종이며,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어 자유가 없는 노예, 또는 주인을 섬기기로 자원하거나 선택한 노예를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가슴 깊이 나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리고 내가 ‘종’ 이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며 성전 뜰만 밟는 의식하는 유대인들과 한도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참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한다.

박귀자(집사, 9교구)

예언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값진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은 소중한 보물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잠깐 주님의 사랑을 잊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한 순간의 사랑임에도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삶의 전부인 듯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의 저의 생각과 사람들은 고분으로 변하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언처럼 나를 따뜻한 게 대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읊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읊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신애(대학부)

사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 용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주신 말씀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부와 명예, 지혜, 생명, 쾌락의 자원을 포박한 솔로몬의 지혜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지혜이신 그 주님이 내게도 오셔서 생의 의미와 본질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경의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기에 법사에 주님을 인정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열정으로 오시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마리아와 시므온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어 순종으로 주님을 영접한 같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시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하신 이기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도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을 준비하고 깨어 있겠읍니다.”

함윤자(권사, 5교구)

간증과 나눔

내려놓지 못한 연약한 나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저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나를 정금같이 빛내려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워지며 믿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에 가슴이 너무 아파 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해야 했고, 그 깊은 아픔을 가슴 속에 품어야 했습니다. 그 아픔이 채 아물기 전 또 다른 고난으로 저는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사람들 앞에 내놓고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리 내 어깨를 누르는 그 고통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가슴 속 깊은 상처와 아픔은 떨칠 수가 없었고 결국 그것은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막힌 현실 앞에 난 기도할 힘도 용기도 없었고 살아 있다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실상가상으로 고통 사고까지 당하여 제 영혼과 육신은 지칠 대로 지치고 소망이라고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수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중보의 기도 시간! 매주 금요일집회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은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위임목사와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의 입까지 막았던 그 고통에서 저를 끌어내 주셨고, 영적 고통은 물론 육적 고통까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기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어둡고 암울했던 길고 긴 터널, 그러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다 맡기지 못한 '나 자신의 문제'였던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무명의 성도

*간증문을 들고 편지국으로 찾아온 이 성도님은 이를 읽히기를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에 금요일집회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영육이 치유된 것처럼 현재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중보의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나올 것을 간절히 부탁하였다. (편지국 주)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찬양으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시 146:2).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찬송가를 1장부터 끝 장까지 모두 다 부른다. 예전에 생긴 습관이다. 어느 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받은 은혜가 벅차고 감격스러웠다.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수 시간 동안 찬양을 한다. 그 때마다 회개하고 주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숨을 추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한다. "찬양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찬양 속에서 나는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눈물 흘리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기쁨을 느낀다. 성령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권화가 내게 임한다. 내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권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의 탄생하심 다 함께 기리세"(찬 117장).

성탄 찬양의 기쁨과 평안이 내 가슴에 가득차 온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소유한 내가 또 다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끝없는 기쁨이다. 은혜로 부른 찬양 하나하나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서 움직여, 내 입술을 통해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주님의 탄생하심에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인가? 내 본향 천국에 가서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내게 있으니 또한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이형진(집사, 2교구)

김성욱(집사, 4교구)

김형진(성도, 10교구)

친구에게 보내는 성탄 카드

성탄절이 되었어!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구나! 12월이네! 난 12월 하면 성탄절이 가장 먼저 생각나. 이제 나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 어렸을 때는 그냥 선물만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나? 이제 나도 자란 만큼 그 정도의 성숙함이 생겼나 봐. 많이 의절했어. 예뻐도 잘 드리고 하니가. 의절했던 거겠지?

무엇보다 소중한 성탄절이야. 널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 예수님이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나도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을 향해 가자. 예수님이 행복하게 웃으시는 날까지! 성탄절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이야! 내가 변한 날, 우리 꼭 예수님 잘 믿자!

강하영(소년부)

사랑하는 친구들아,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아!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나? 많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겁게 선물도 주고 받고 성탄 카드도 쓰고 가족끼리 즐거운 식사도 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지.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날이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들도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해야 한대.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어.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 그분은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께서서는 초라한 벧레헴의 딸 우리로 태어나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애들아. 친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아니야! 친구에 가려면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해.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번 크리스마스에 너희들이 해야 할 많은 일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을 하나 만들었으면 해. 그것은 마음을 다 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아름답고 뜻깊은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래. 다시 한 번 친구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김예림(초등부)

CMTC 윤련 메시지 ①

사도행전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죄인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허락하는 복된 소식이기때 복음 증거자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할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에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선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을 통하여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는가? 성령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성령님의 역사, 믿음의 순종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믿음 그 자체였다(행 1:14). 이 모습이 사도행전 전에 잘 기록되어 있다.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에 관한 내용(행 1-12장)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편파되는 과정이 되었는지에 관한 복음의 확장을 증거하고 있다(행 13-28장).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서는 강조하는 점은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행 2:1-4). 성령님께서 임하시므로 비로소 이 땅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성령의 임하심은 그들을 십자가의 비참을 깨닫는 자들로 변하게 했을 뿐 아니라(행 2:36, 4:12),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로 변하게 했으며(행 4:19-21), 나이가 지장을 부인하는 자들로 변화시켰다(행 5:40-42).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걸림돌이었다(마 16:22). 더욱이 이들은 함께 모였을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근 자들이었다(눅 24:36). 그리고 서로 놀아지고 하며, 세상 영광을 좇아가던 자들이었다(마 20:20, 21; 눅 18:31-34). 그러나 성령은 그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잠든 문을 열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으며, 가는 곳마다 민나는 영혼들이다.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변화시켰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버치는 자들로 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이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 나이가 성교 한창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열기로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선교가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도행전의 선교이다. 진실로 지기를 부인하는 종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신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지기를 부인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임을 잊지 말자.

(선교위원회)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55	이필조	14 소양부	정민선(9)	2583	김종훈	1 청년2부	장 직(19)
2556	조창환	19 고등부	김병수(13)	2584	손영남	1 청년2부	장 직(19)
2557	우희부	19 외선부	윤병관(12)	2585	서아	19 외선부	김윤환(5)
2558	사초근	19 외선부	주비인도(19)	2586	나혜	19 외선부	박남준(3)
2559	김혜영	19 청년1부	윤선식(17)	2587	나혜나	19 외선부	김진식(7)
2560	김민주	19 대학부	김윤숙(8)	2588	호재	19 외선부	최선영(3)
2561	상기방	13 장년3부	김종희(13)	2589	김성현	19 청년1부	한영숙(14)
2562	최승우	6 청년1부	최병삼(1)	2590	하카	19 외선부	한영숙(14)
2563	나병순	10 청년1부	김갑수(10)	2591	이유재	19 청년1부	한영숙(14)
2564	김진경	3 청년2부		2592	안기홍	19 청년1부	한영숙(14)
2565	박준식	14 청년1부		2593	김창진	19 대학부	전은애(16)
2566	김진호	14 청년1부		2594	송성호	5 청년2부	최희인(16)
2567	박준호	14 중등부		2595	김성진	3 청년2부	
2568	박미애	12 청년2부	정향민(11)	2596	서종원	2 청년2부	심복진(19)
2569	김영주	19 대학부	황병영(9)	2597	김미경	2 청년2부	심복진(19)
2570	이은진	19 청년1부	최 순(10)	2598	송광국	19 청년1부	
2571	오영은	19 청년1부	김승희(1)	2599	한영우	15 청년1부	이인교(15)
2572	새하영자	1 외선부	정영숙(1)	2600	나혜	19 외선부	박태민(10)
2573	최광규	19 청년2부	조주원(1)	2601	박	19 외선부	이정(5)
2574	조은희	2 청년2부	박성명(11)	2602	미아스나	19 외선부	김영숙(6)
2575	김형철	7 청년2부	박성명(11)	2603	진종	19 외선부	정창호(12)
2576	김성문	17 청년2부	최성명(15)	2604	고지	19 외선부	김영미(5)
2577	박미영	14 청년2부	최성명(11)	2605	조인아	19 대학부	이정(5)
2578	임진숙	8 청년2부	이성명(8)	2606	최현숙	19 청년1부	이연애(9)
2579	이혁주	19 청년1부	김경하(16)	2607	최희재	12 청년1부	김익수(9)
2580	송광국	2 청년2부	조영진(2)	2608	최성재	19 대학부	황재미(1)
2581	윤국현	19 고등부	임대현(5)	2609	이유택	19 대학부	박지민(19)
2582	조두현	19 청년1부	이희우(4)				

*종교개혁의 한 거룩히 되기를 위하여는 모든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

